

도화주세요

병상에서 날아온 편지 두통

8월 23~24일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에는 주저함이 가득 담긴 듯 처분한 필체의 편지 3통이 전달됐다. 이중 심장병 수술을 앞두고 있던 지역의 한 스님의 사연은 병고를 이기지 못하고 26일 입적에 들어 생략하고, 남편과 엄마를 실려달라는 간절한 사연이 담긴 두통의 편지를 소개한다.



나눔, 생명을 살리는 공덕입니다

“남편 수술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불쌍한 사람입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밤낮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부처님 법도 간절히 믿었습니다.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하면서 불자모임의 봉사부장을 맡아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던 남편이 지난해 급성골수성백혈병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 이분옥 씨(44)는 백혈병 진단 받은 남편 유호원 씨(51)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편지에 적었다. 불혹이 넘은 나이에 만난 유 씨 부부. 아내는 우울증에 두 번 씩 자살을 하려 했던 남편을 사랑으로 품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자못 사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삶은 이들 부부에게 행복만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지난 2003년 급성백혈병은 유 씨를 병상에 눕게 했



아내 이분옥 씨가 병상에 누운 남편의 병수발을 들고 있다.

다. 다행스럽게도 유 씨는 동생의 골수 기증으로 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비 3천만 원은 고스란히 이들 부부에 게 큰 짐으로 남겨졌다. “집 한 칸 없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혈병은 우리 가족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남편의 건강과 수술비 해결입니다.”

이들 부부는 15만 원짜리 사글세방에서 살고 있다. 그나마 있던 전세금은 수술비용으로 모두 들어가버리고, 지금은 빚만 잔뜩 늘었다. 아내 이 씨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도 커 보인다. 후원계좌 번호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0

림프종 앓는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두 아이가 학교에 간 시간, 남편 오규태 씨가 아내의 병상을 지키고 있다.

“엄마! 헤리예요. 며칠 전 밤새 엄마 ‘꿈꿈’ 땀났잖아요. 많이 아팠어요? 호랑이 아줌마처럼 통통 부은 얼굴이 가라앉아 지금은 많이 나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그러니 걱정이예요.” 헤리(12)가 어머니 이현진(38) 씨에게 쓴 마음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엄마가 저녁에 마트일 나갈 때마다 아빠가 힘드니까 괴롭히지 말래요. 저

번에 피자 사달라고 졸랐다가 아빠에게 무지 혼났잖아요. 예리 밥이나 잘 챙겨주라고 꾸중만 받았죠. 엄마! 난 요즘 은근히 화가 나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반쯤 어른 취급을 하시지만, 가끔 어린 아이처럼 투정도 부리고 싶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헤리. 아직 가끔씩은 어리광을 부릴법한 나이지만, 집안

행편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엄마, 사실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아빠 어저께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내가 요새 들어 엄마 말 잘 안 들어서 속상해서 우나고 물으니까 갑자기 울다가 웃더라고요. 실은 엄마, 아빠가 우는 이유를 난 잘 알아요. 림프종이라는 게 엄마 머리에 생겨 수술조차 불가능하고, 엄청난 수술비와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의사가 꿈이라는 헤리. 이제는 꿈을 바꿨다고 한다.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돼 온 가족이 넉넉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후원계좌:우체국 202200-02-031589(예금주 오규태) 011-824-6067 김철우 기자

헌혈증 123장 생명나눔회에 전달



본사 서정만 이사(왼쪽)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혜숙 사무총장에게 헌혈증을 전달하고 있다.

본사에 전달된 헌혈증 123장이 8월 26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조계종 총무원장)에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혜숙 사무총장은 “적십자에서 혈액이 바다나 파도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헌혈증을 다량으로 확보하게 돼 너무 감사하다”며 “생활이 어렵고, 헌혈증이 꼭 필요한 불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된 헌혈증 123장은 (사)불국토(이사장 혜종)와 본사가 부산에서 함께 주최한 헌혈행사에 참여한 불자들이 전달한 95장을 비롯해 익명의 스님이 본사 나눔의 손잡기운동에 보내준 27장, 경북 포항에서 장천수 거사 1장 등이다. 김원우 기자

법련사, 아동용 겨울옷 2000벌 기증



법련사 총무 스님 등이 북한 어린이에게 보낼 옷가지들을 실은 차에 기증행영한 모습.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과 북한 어린이들이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의류 2천벌이 전달됐다. 서울 법련사(주지 보경)는 8월 25일 아동용 겨울의류(운동복, 니트, 조끼 등) 2천벌을 승가원 선재동자원들 13개 복지시설과 북한동포를 돕는 한국제이티에스(이사장 법륜)에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이번 법련사 겨울 옷 보내기 운동은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신도들의 동참으로 이뤄졌다. 주지 보경 스님은 “행복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옷을 주는 것이 바로 보살도의 실천”이라며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김원우 기자

나눔의 손잡기 기금 접수

- 수지 보현정사 -137만2천원
 - 강문선 -58만3천830원
 -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19만3천500원
 - 박기정 -10만원
 - 구길자 -4만8천630원
 - 정지윤 -1만원
- 총 누적금액 20,845,680원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2-4162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세요.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아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영점권을 공동 사용합니다.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장차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장차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들에게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이 불자들에게 '불성'을 기우어 주는 정려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교사찰 단계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 ◇매달 한편씩 동참자명단을 게재합니다.
 -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이렇게 참여하세요

-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계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기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 등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주세요.
- ♥ 정기후원 참여
 -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 결연
 -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